

마라탕 중독과 균의 습격 ①



연운열의
푸드톡

지난 4월 중순, 한국소비자원이 마라탕에 대해 폭탄 발표를 했다. 국내 마라탕 프랜차이즈 20곳을 대상으로 위생실태를 점검한 결과, 3개 매장의 마라탕과 땅콩소스에서 황색포도상구균,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대장균이 무더기로 검출됐다는 것이다.

마라탕의 출생지는 중국 쓰촨(四川)성 러산(乐山)이다. 수백 년 전, 쓰촨의 뱃사공들이 배를 강가에 정박한 뒤 주위에서 구한 재료들을 한 솥에 넣고 돌 위에서 끓여 먹던 것에서 유래했다.

‘마라(麻辣)’라는 말 자체가 이 음식의 정체성을 요약한다. ‘마(麻)’는 혀가 얼얼하게 마비되는 느낌, ‘라(辣)’는 매운맛이다. 이 두 감각을 동시에 폭발시키는 비밀 병기는 화자오(花椒), 즉 중국 산초다. 일반 고추의 캡사이신과 달리, 화자오의 히드록시알과 산소유 성분은 혀의 감각 신경을 직접 마비시켜 그 독특한 얼얼함을 만들어낸다.

이 음식이 한국에 처음 발을 들여놓게 된

것은 2010년 무렵으로, 한국에 거주하는 중국인 유학생이 많은 대학가를 중심으로 전문 음식점이 생기면서 시작되었다. 2010년대 중반부터 본격적으로 한국인에게 알려지기 시작했고, 얼얼한 매운맛이 여성 청년층을 중심으로 빠르게 퍼지면서 주요 변화가에 마라탕 프랜차이즈가 속속 문을 열었다.

마라탕 프랜차이즈 가맹점수는 2020년 13개에서 2022년 106개로, 불과 2년 만에 715%나 폭증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국내 마라탕 시장 규모는 약 1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약 20% 증가했다.

마라탕의 조리 방식은 독특하다. 손님이 양푼에 먹고 싶은 재료를 직접 담아 카운터에 내면, 무기에 따라 가격을 매긴 후 주방에서 재료를 넣고 탕을 완성해 가져다 주는 방식이다.

소비자가 직접 재료를 고른다는 점에서 마라탕은 일종의 ‘식탁 위의 커스터마이징 경험’을 제공한다. 육수의 핵심은 마라 소스다. 고추기름, 두반장(豆瓣醬), 화자오, 마늘, 생강, 각종 향신료를 오랜 시간 볶아 만든 소스를 육수에 녹여낸다. 매운맛 단계는 보통 0단계(백탕)부터 4단계까지로 나뉘고, 마지막에 제공되는 땅콩소스에 찍어 먹

는 것이 정통 방식이다.

마라탕 한 그릇의 칼로리는 어마어마하다. 재료 구성에 따라 다르지만, 평균적으로 700~1200kcal에 달한다. 나트륨 함량은 하루 권장량(2000mg)을 훌쩍 넘기기 일쑤다. 포화지방 함량도 상당하다. 건강 측면에서 보면 결코 ‘좋은 음식’이라고 할 수 없다. 그럼에도 오래도록 찾는 이유를 알아보자.

첫째, 화자오의 마비 효과다. 혀가 얼얼해지면 뇌는 이를 일종의 자극 신호로 받아들이고, 엔돌핀과 도파민을 분비한다.

둘째, 커스터마이징 쾌감이다. 혼자서 자기가 원하는 형태로 재료를 조합해 먹을 수 있는 혼밥 친화적 음식이라는 점이 다양한 취향을 한 번에 충족시켜 준다. MZ세대의 개인화 욕구와 맞아 떨어지기 때문이다.

셋째, 한국화 로컬전략의 성공이다. 중국 현지와 달리 국물까지 마실 수 있도록 향신료를 줄이고 기름을 적게 쓴 것이 한국화 성공의 핵심 요인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국물의 민족”에게 맞게 현지화된 것이다.

넷째, SNS 확산력이다. 마라탕의 빨간 국물과 형형색색 재료의 비주얼은 인스타그램을 타고 폭발적으로 퍼져 나갔다. 여성·2030 세대가 마라탕 검색을 주도하고 있다.

/기술사, 칼럼니스트

삼천당제약, 시장이 원하는 건 해명 아닌 신뢰



기지수첩
신하은
(자본시장부)

118만4000원과 48만5500원. 최근 한 달 기준 삼천당제약의 고점과 저점이다. 지난 달 30일 장중 120만원을 돌파한 뒤 2거래일 연속 급락하면서 이틀 동안에만 시가총액 약 10조원이 증발했다.

지난 1월까지 20만원대였던 삼천당제약의 주가는 3월 들어 120만원까지 날뛰기를 했다. 단숨에 주가가 불어나면서 코스닥 시가총액 1위를 기록하기도 했지만, 8거래일 만에 시가총액 4위로 다시 밀려났다. 결과적으로 삼천당제약이 ‘황제주’(주당 100만 원 이상)를 유지했던 기간은 단 4거래일에 불과하다.

삼천당제약의 주가가 종잡을 수 없는 흐름을 보인 이유는 ‘기술’ 때문이다. 앞서 삼천당제약은 미국 파트너사와 15조원 수준의 공급계약을 체결했다고 전하면서 기대감이 확대됐다. 하지만 삼천당제약이 내놓은 호재성 공시에는 경구용 비만·당뇨치료제와 관련해 약 1억달러 규모의 마일스톤(단계별 기술료)과 향후 판매 수익의 90%를 받는 독점계약을 미국 파트너사와 체결했다고만 적히면서 시장의 불신이 발생했다.

앞선 데 덮친 격으로 삼천당제약 최대주인 전인석 대표는 2500억원 수준의 주식 매각 계획을 밝혔다. 논란이 불거지면서 대규모 지분 매각(블록딜) 계획 철회하는 등 사태 수습에 나섰지만, 시장의 신뢰는 한풀 꺾였다. 더불어 한국거래소가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예고를 내리면서 힘이 더 실린 모양새다.

주목되는 점은 일부 증권사와 애널리스트들을 상대로 법적 대응을 언급했다는 점

이다. 한 증권사 애널리스트가 삼천당제약의 경구용 비만·당뇨 제네릭 의약품과 관련한 추가 임상 필요성을 제기하자 삼천당제약은 허위 사실에 대한 고소와 손해배상 청구를 거론했다. 사실상 부정적인 의견을 막으려는 과잉 대응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그럼에도 바이오 기업들의 보수적인 대응은 불가피한 속제다. 특기가 빛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시장을 선점하는 것이 중요하고, 기술이 등록되기 전까지는 철저히 벽을 세울 수밖에 없다. 당장 실체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투자해야 하는 투자자들에게는 비공개 정도가 매우 중요할 것이다.

논란은 현재 진행형이다. 아무리 중요한 사안이라고 해도 시장의 신뢰까지 비공개할 수는 없다. 투자자들이 원하는 것은 막연한 기술 기대감이 아니라 그 기대를 정당화할 수 있는 설명과 근거다.

/godhe@metroseoul.co.kr

재미로 보는 오늘의 운세 4월 21일 (음 3월 5일) 표준토리(www.fortunetory.com)



48년생 시비를 가까이 하지 마세요. **60년생** 구설수가 따를 것이니 사람과의 교제를 잘하세요. **72년생** 맘 흘리는 운동을 하면 좋습니다. **84년생** 능력 있는 뒷사람을 만나 해결합니다.



49년생 동업은 길하다고 보겠습니다. **61년생** 남의 언쟁에 끼어드는 것을 삼가하세요. **73년생** 의외의 돈이 들어와 살림이 불어 나겠습니다. **85년생** 분수를 지키는 것이 상책입니다.



50년생 주변 유혹에 동조되지 마세요. **62년생** 하고자 하는 사업이 있다면 잠시 미루는 것이 좋습니다. **74년생** 누구나 때가 있는 법입니다. **86년생** 바라던 소망이 곧 이루어 지겠습니다.



51년생 소원이 성취되니 여태껏 노력을 한 보람이 있겠습니다. **63년생** 계약 건이 체결됩니다. **75년생** 만족할 만한 직장에 특채로 입사하게 됩니다. **87년생** 일이 많아지나 마음은 편안합니다.



52년생 늦었을 때가 가장 빠르다고 합니다. **64년생** 뒷사람이나 주위사람의 충고를 떠올리세요. **76년생** 부주의로 귀중한 물건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88년생** 커다란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53년생 베풀고 나누는 마음을 가져야 더욱 길하겠습니. **65년생** 밖으로 나가면 좋지 않습니다. **77년생** 사업이 번창할로에 있습니다. **89년생** 하늘에서도 복을 내리는 형상입니다.



54년생 분수껏 행동하는 것이 유익 하리라 봅니다. **66년생** 친구의 유혹 등 주변을 조심하세요. **78년생** 권력 있는 사람을 찾아 보세요. **90년생** 모든 것은 항상 시와 때가 있는 법입니다.



55년생 매사에 노력하고 정도를 걸어야 합니다. **67년생** 인내심과 끈기가 많이 필요 합니다. **79년생** 어느 곳으로 가든지 좋습니다. **91년생** 꾸준한 노력으로 이겨 내어야 합니다.



56년생 기다리는 마음을 가졌으니 분명히 이루게 됩니다. **68년생** 마음을 바로 잡고 착실하게 살아야 합니다. **80년생** 죄를 지으면 안됩니다. **92년생** 방황했던 마음을 바로 잡는 운입니다.



57년생 거짓말을 절대 하지마세요. **69년생** 술자리에서 말다툼이 커질 수 있으니 시비를 조심하세요. **81년생** 생각지도 못한 지출을 하게 됩니다. **93년생** 가정사에 큰 경사가 생깁니다.



58년생 주변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일이 생깁니다. **70년생** 설 틀 없이 바쁘지만 실속은 있습니다. **82년생** 많은 사람들이 귀하를 도와 주려고 합니다. **94년생** 도모하는 일이 호황을 맞게 됩니다.



59년생 역경을 피하지 말고 당당히 부딪혀 보세요. **71년생** 하루도 편할 날이 없습니다. **83년생** 허황된 일은 삼가 하여야 합니다. **95년생** 일을 급히 도모하려고 마음을 태우지 마세요.



김상회의 四季 성동격서, 허 찌르기

중국 고대 병법 36계 중 성동격서는 한자 그대로 풀이하면 동쪽에서 소리를 내고 서쪽을 공격한다는 뜻이다. 적의 주의를 엉뚱한 곳으로 돌려놓고, 정작 중요한 목표물의 허를 찌러 공략하는 기만전술의 핵심이다. 전쟁터에서 승기를 잡기 위한 이 지략은 비단 군사 작전에만 머물지 않는다.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때도 이 성동격서의 원리는 놀라울 정도로 유효하다. 많은 사람이 어려운 문제에 직면했을 때 정면 돌파만을 고집하곤 한다. 정공법은 분명 당당하고 멋져 보이지만, 때로는 너무 많은 에너지 소모를 불러오고 예상치 못한 저항에 부딪혀 좌절을 겪게 한다. 이때 필요한 전략이다. 주변의 상황을 살피며 때로는 우회하고 때로는 시선을 분산시키는 유연함이 필요하다는 말이다.

병법의 원리는 사주 명리학의 조화, 통관 이론과 맥을 같이 한다. 특정한 기운이 너무 강해서 흐름이 막혀 있을 때, 억지로 누르려고 하면 오히려 반발이 일어나 사달이 난다. 이때는 강한 기운을 자연스럽게 흘러보내는 설기나, 서로 대립하는 두 기운 사이를 부드럽게 이어주는 통관의 지혜가 필요하다. 성동격서 역시 눈앞의 장애물과 정면으로 부딪치기보다, 다른 쪽으로 에너지를 흐르게 하여 목적을 달성한다는 점에서 명리의 상생 원리이다. 직장에서 상사와의 갈등이 생겼을 때, 정면으로 논리를 내세워 싸우는 것은 하책이다. 오히려 업무 외적인 부분에서 성실함을 보여주고, 정작 본인이 관찰하고 싶은 안건은 가장 적절한 타이밍을 골라 제안하는 것이 훨씬 영리한 처세다. 비겁이나 재성이 과한 사주는 눈앞의 이익만 따라가다 제풀에 무너지곤 한다. 이때 성동격서 전략처럼 한 호흡 쉬어가며 주변을 살핀다면, 삶의 균형을 잃지 않으면서도 원하는 결과를 손에 쥌 수 있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회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스도쿠365

3X3 �도쿠 X는 가로세로 3X3박스에 1부터 9의 숫자가 대각선 화색 9개에 1부터 9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문제출제: 손호성
서울은 그랜드의 월드퍼즐을 즐겨보세요
<http://www.argo9.com>

할인도서

7	6	1	5	3
6				
		3	6	
1		9		7
7				8
8	6		2	
		2	9	
9	6		7	5
				8

7			5		6				3
	4			9	2				7
		4		2	5				
	2								4
				3	6		1		
3				1	8				7
6									
			8				3		

8	8	2	9	2	1	9	6	7
6	9	7	2	8	8	2	1	9
9	1	2	7	9	6	2	8	8
7	9	1	2	2	8	6	9	8
9	2	6	1	8	9	8	7	2
8	2	8	9	6	7	9	2	1
1	6	9	8	7	2	8	9	2
2	7	8	6	9	2	1	8	9
2	8	9	8	1	9	7	2	6

1	9	2	8	9	2	8	6	7
9	8	8	6	7	2	1	2	9
6	2	7	9	8	1	2	9	8
2	9	1	7	9	8	2	8	6
8	7	8	1	2	6	9	2	9
9	6	2	9	2	8	7	8	1
2	1	9	2	6	9	8	7	8
8	2	6	8	1	7	9	9	2
7	8	9	2	8	9	6	1	2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편집인	이장규	편집국장	윤휘중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206 2002년5월28일 제5897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2001호		

본지는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서약사서로 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